

2025학년도 최종 합격 수기

●응시정보

응시과목	미술	응시지역	서울	응시횟수	2
임용시험 준비시기	대학원 재학중	합격 준비기간	_2_년_6개월	시험준비 병행여부	올인

● 합격점수(2024) - 1 차합격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16.33]점 / 전공(교육과정) [55]점
---------	---

● 합격점수(2025)

1차 합격점수	교육학(교직논술) [16]점 / 전공(교육과정) [58]점
최종 합격점수	[162.36]점
가산점	[-]점 (가산점이 없을 경우 '0' 을 입력해 주세요.)

● 합격수기 작성

작성 예시를 참고,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꼭 아래의 문항에 맞춰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격적인 합격수기에 앞서 일단 전 완전 노베이스로 시작한 경우는 아니였어서 제 대략적인 상태먼저 공유를 드릴게요

* 대학교 - 서울내 4년제 금속공예학과

* 대학원 재학 당시 (2022년)

1-2월 개념 강의 - 직강 수강

3-4월 교생실습, 가족 & 본인 코로나 증상으로 인하여 공부 X

5-6월 문풀강의 - 직강 수강 그 이후는 공부 거의 X

다이어리를 보니 7월 말부터는 독서실 자리 다빼고 임용 포기하고 대학원 졸업에 집중했습니다.

* 23년도부터는 1월부터 위상 패키지를 통해 직강수강하며 공부했었고 컷+6으로 1합했지만 2차 준비가 부족하여 최탈했었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공부방식은 같았기 때문에 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 시기별 교직논술/교육학 학습방법

1) 1~2월

교육학 공부의 경우 모두 인강으로만 수강하면서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초수때는 연간패키지로 1-2월부터 개념을 수강하였고 재수때는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개념강의 수강하면서 강의 수강 후 복습 위주로만 진행하였고 별도의 스터디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 3~8월

8월까지도 따로 인출연습이나 스터디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사가 제공하는 복습테스트와 같은 자료들만 활용해서 공부했습니다. 인강의 경우 하루씩 늦게 업로드 되기 때문에 수목에 교육학 듣는시간을 정해두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인강을 수강하고 밀리지 않도록 수강했습니다.

3) 9~11월

9월부터는 모고위주로해서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모고에서 다뤘던내용, 학자 관련해서는 모두 암기하고, 강사분이 나눠준 요약 자료들은 마지막까지 갖고 있으면서 반복해서 봤습니다. 9월부터는 암기할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짝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강사가 공유해준 잇키 빈칸자료를 통해 서로 인출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마지막까지 진행했던 인출 스터디가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2. 시기별 교육과정/전공 학습방법

<공부방법>

사실 저는 복잡한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단순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표를 작성했었고 그틀 안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1) 스터디 진행)

공통적으로 시험 전 10월정도 까지는 하루의 마지막 일정으로 밤 10시쯤 미술사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한 전스(구두인출)와, 구르미 캠퍼스터디, 직강끝나고 모고인출복습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2) 월별 공부

	1-2월	3-4월	5-6월	7-8월	9-11월
교육학		인강 / 이해 위주			인강/인출시작
전공		인강	직강		
실기		평일 1일 2T		평일 1일 1T	1차집중

1. 1~2월

초수에는 직장 수강을 했었고, 재수때는 최탈 후 운동하면서 휴식을 취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초수는 사실 그저 이렇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전공내용의 파악하는 시기입니다. 완전한 이해가 되지 않는게 정상이라 생각합니다. 초수분들은 34월 심화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실거 같아요. 어려운 부분들은 막판에 되서야 제대로 이해되는 내용도 있으니 밀리지 않고 강의를 따라가는거에 목표를 두시고 차근차근 밟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2. 3~4월

초수때는 똑같이 직장을 수강했었고 재수때는 인강을 들으면서 다시 공부하는 생활 루틴을 잡아가려고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2차에서 실기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3월부터 하루에 2타임씩 실기학원을 다녔습니다.

3. 5~8월

5월부터는 계속 직장에 참여했습니다. 실기학원은 34월 까진 2타임씩 진행하다가 56월 필독서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직장 끝나고 한타임씩 다녔습니다. 직장이 끝난 후에는 짝스터디를 통해 매주 전주 모의고사를 인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직장은 안오는 평일에는 개념과 심화강의때 순서대로 매주 타겟영역을 정해서 공부했었고, 78월에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육과정 인출				직강	직강	휴식
직강복습(금)	직강복습(토)	교육학 인강 + 복습				
전공 공부				실기		

4. 9~11월

9월부터는 본격적인 인출을 시작하면서 공부했던 시기입니다. 9월부터는 회독속도를 좀더 높여나갔습니다. 회독주기를 정해서 그것에 맞추기 보다 먼저 제가 1바퀴돌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 후 매주 회독주기를 조정해 가면서 진행했습니다. 이때 저는 10월까지도 몇회독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한번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도록 하는데 집중했었습니다. 11월달 시험 전 1-2주 남겼을때만 눈에 바르듯 진행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육과정 인출					직강	휴식
교육학 모고 + 잇키인출						
전공 공부						

3) 전공 공부 주안점

합격 수기를 작성하면서 월별로 어떤 방법이 있었나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없더라구요... 그냥 직장갈때 열심히 듣고 질문했고, 평일에는 복습하면서 부족한 부분의 이론 암기한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했을때 제가 했던 방식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1. 복습시간은 충분히 갖기

- 저는 직강에서의 강의를 들은것에 대하여 복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초수 때에는 3-4월 까지도 혼자 공부하던 시간은 복습하는데 시간이 다 투자될 정도였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돌려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들어보고 자료들을 검색해도 이해안되는 부분들은 다음주에 직강에서 강사분을 붙잡고 이해될때까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이해가 되면 암기는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해된 부분들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2. 체크리스트의 활용

저는 체크리스트를 혼자 공부할때 많이 활용했습니다. 태블릿에 제가 그날 공부할 파트의 체크리스트를 켜놓고 그 파트에서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부분, 비교 관점 등을 확인** 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했고, 공부 후 체크리스트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보며 그부분들이 제대로 인출되는가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이때 저는 체크리스트의 답을 만들고 그걸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의 답을 만들고 그거로 공부를 하다보면 그것만 보게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한 영역정도 만들다 멈추고 그이후로 제가 단권화된 자료로만 계속 공부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론서를 기준으로 구석구석 한번이라도 더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 양보다는 질

저는 순공시간 자체가 많은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이걸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되는 시기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하나도 머리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 이런 성향이 있는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거나 아픈시기에 억지로 앉아있기 보다는 피곤하면 바로 좀 자다가 일어나거나, 쉬고 컨디션을 회복한후 집중해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순공 8시간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9시간을 목표로 진행했어요. 물론... 매일같이 지키지 못한날도 있습니다. 정말 집중이 잘됐던 날도 11시간이 최대였지만 그 다음날이면 몸에 무리가 와서 원래 하던 페이스를 유지하고자 했어요. 저는 최소 7-8시간은 해야겠다는 혼자만의 기준을 갖고 이에 맞춰 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순공시간이 얼마인지는 중요한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간혹 카페에 순공시간이나 회독횟수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있더라고요. 자신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을 눈으로만 보고 왔는지, 진짜 머리속에 박아놓고 왔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시고, 그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3. 2차 시험 학습방법(면접, 수업실연, 실기 등)

1) 교직적성 심층면접

서울은 다른 지역들보다 면접에서 많은 점수가 감점됩니다. 특히 실기가 자신없으신 분이라면 면접 꼭꼭꼭 잡고가세요!. 실기점수가 모자르더라도 면접점수만 잘 받아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요. 다만, 초수라 경험이 없거나 미술실기로인하여 면접스터디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 카페를 통해서 직접 모집하시길 추천드려요

저 또한 초수때 운이 좋게도 1차를 합격했지만 면접 스터디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정보부족 문제로 준비가 미흡한 나머지 점수를 잘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때 조금만 더 잘나왔어도 하며 1년 내내 후회했었습니다.

이번해는 스터디를 제가 직접 구했었고 스터디원 모두다 면접에서 높은점수를 받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경험을 토대로 스터디 구성의 팁을 공유드려요.

- 실기과목이 있는 과목끼리 구성하기 (보통 오전 9-12 3시간)

(그래야 실기시험 앞두고나 평소 일정 짜기 용이합니다.)

- 이전 최탈자로 면접경험이 있거나 기간제 경험이 있으신분 (가장중요)

(특히 학교 기간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 이야기를 많이 알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사기업 면접 경험이 많으신 경우

이번해는 면레에서 서울타겟으로 교재를 출간해서 시책을 따로 분석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으로 합격시그널과 여러 기사 + 교육감 블로그 + 시책+ 신년사 들은 놓치지 말고 챙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서울은 점점더 면접에서 요구하는 답의 가지수가 많아지고 조건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면레보다 합시가 좀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합시는 서울에 초점되어 있어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면접은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시험이 아닙니다. 말하는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왔을 때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총알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터디때 말하는것을 연습하는것 보다도, 혼자 각종 이론, 시책들을 충분히 암기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답변을 두괄식으로 이야기하는것! 전 이렇게 중점을 두었습니다.

2) 교수학습지도안/수업실연

<지도안>

저는 이번에 지도안에서 0.57이 감점되어 9.43을 받았는데요. 사실 첫 시험에서 6점때를 받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 처럼 지도안부분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몇가지만 얘기드립니다.

지도안을 공부하실 때에는 학원에서 공유해주는 모범답안들을 잘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었을때 어떻게 진술했는지 하나씩 매치해보시고, 어떤 형식으로 작성했는지를 중점으로 보시면서 이해 하셔야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신것과 같이 지도안 작성에서는 조건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시연 문제지에는 지도안 작성부분을 시연하라고만 조건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조건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크로스 체크하시면서 기억하고 계세요.

서울의 경우 지도안 작성과 구상시간에 검은색 펜만 사용 가능하고 수정테이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번 시험에서 마지막간에 있던 조건을 뒤늦게 잘못쓰고 있음을 발견했었는데요. 이럴때 당황하지 마시고 두줄 긋고 그 사이에 끼워서 작성하세요. 저도 5줄 가까이 줄긋기 하고 작성했지만 소수점으로 감점되었습니다.

<수업실연>

수업실연도 지도안과 마찬가지로 조건이 중요한데요, 저는 하나의 연극을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 실제로 수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연습하실 추천드립니다.

사실 어떤부분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선생님들마다 가진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언급하기는 어려운것 같아요. 다만, 저는 다양한 구성원들과 스터디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들마다 각자 여러 강점들을 가지고 계신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양한 구성원들과 스터디를 하게되면서 그분들이 가진 각각의 강점들을 발견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부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4. 자신만의 공부방법(어려운 문제 대비법, 슬럼프 극복, 체력관리 등 수험생활 전반의 TIP)

저는 중간중간 공부 방향성을 잃을때면 장쌤과 상담을 통해서 공부 방법을 수정해 나갔었습니다. 공부에 방향성을 잃고 성적이 떨어진다 싶으시면 바로 강사분들과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저는 쉬는 시간에 웹툰이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공부 후 운동을 가면서 휴식과 운동시간을 충분히 갖았습니다. 시험 마지막까지도 일요일은 쉬면서 집에서 하루종일 자거나 가족들과 근교 나들이를 가면서 휴식시간을 보냈습니다. 집과 스터디 카페만 오가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씩 나가길 권장드려요.

5. 희소/쌤플러스 선생님(강사)께 감사의 편지 쓰기

매번 열심히 질문을 받아주고 마지막까지 제가 실수하는 부분들을 조언해주신 장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시험때도 그렇지만 장쌤이 해주신 조언들 덕분에 한 두문제씩 더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쌤 덕분에 다들 어려워하는 미교론도 마지막까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허리아픈거 걱정해주시면서 침식지에 편지글을 남겨주셨던 윤진쌤! 수험생의 입장에서 힘든점들을 공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직강다니면서 교수님이 한명한명 기억하시면서 신경쓰고 계시다는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강의와 문제들로 신경써주신 위상팀 모두 감사드립니다!

6.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

1차 전공시험은 대부분 많이들 실수를 하십니다. 다만 누가 더 실수를 적게하는가, 아님 그 실수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점수를 더 받느냐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정확히 외우셔야합니다ㅠ
저 같은 경우도 다들 맞는 문제들에서 4-5점이상 나갔어요. 주변에 보면 저만 그런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을수 있는 문제들을 다맞춘다면 충분히 합격할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맞추기위해 노력하시기 보다 기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감점이 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용을 준비하면서 느낀점은 합격하신 분들과 그러지 못한 분들의 실력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남은시간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다들 좋은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